

농생명 · 바이오 맞춤형 인력양성

익산시, 산·관·학·연 유기적인 공유·협업...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

익산시가 원광대학교와 협력하여 농생명·바이오 분야 인력양성과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 지원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에 대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4년부터 4년 동안 국가예산 30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4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RIS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협업하여 지역의 핵심분야 산업과 연계해 교육체계를 개편, 공동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과제는 푸드테크 디지털농업, 바이오소재, 동물헬스케어, 라이프케어 등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창의 인재 양성·기술 고도화·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산·관·학·연의 유기적인 공유와 협업으로 추진된다. 익산시는 지역혁신사업 총괄 운영과 지원을 맡고 원광대학교는 농생명·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다.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기관은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등 인프라 지원을 기업체는 하림을 포함한 2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

여 기업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과 지역인재 채용을 분담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식품과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사업,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구축 사업 등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의 연구 인프라를 융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의 핵심사업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인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귀어 창업·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

군산시는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이면서 군산시 전업일을 기준으로 군산시 어주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군산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재혼배우자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 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는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과 주택구입 자금(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이며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지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 당 최대 7천 5백만 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주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군산시 어업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https://www.stai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어촌의 고령화를 막고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서 젊고 새로운 인력의 어촌에 유입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줄 귀어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추가 모집

익산시가 오는 18일까지 '제2차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시는 8일부터 진행된 겨울방학 행정연수가 4.6:1의 경쟁률로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음에 따라 참여자 100명을 추가 모집키로 했다.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은 겨울방학을 맞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직무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의 소득 창출을 지원해 학비 미련 등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익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뒤 '청년시정'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시민 주거 안정 지킨다... 주택 공급 '철통 방어'

공동주택 16곳 중 분양 14곳 일정에 맞춰 진행 '이상 무'

익산시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주택 공급 과정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익산지역에서 시공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분양형 14곳과 임대형 2곳 등 총 16곳이다.

시는 이 중 분양아파트 14곳은 차질 없이 일정에 맞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1곳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를 기다려 온 시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 주택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관련 금융

기관 등을 직접 찾아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보증서도 통지를 내렸고, 현재 임대보증금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환급 절차에는 2~3개월이 소요되나 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여 일 만에 진행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제한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부송동 데시앙 아파트(745세대)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는 안정적인 현장관리로 적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집과 안전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주거 안정과 관련한 일은 언제든 시민 편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익산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중단된 중앙동의 한 주상복합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도,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농기센터, 농업기술보급 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2024년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 시범사업은 경쟁력 있는 군산 농업을 육성하고자 6개 분야 29개 사업을, 16억 9,200만원을 지원하며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농지 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 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비롯한 농촌지원 분야 7개 사업과 비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및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 등 기술보

급 분야 2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후 농업인화 협동심의회를 거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신청서는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와 농민상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안내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은 "농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군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중금속 확대 무료 지원

익산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속도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축산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연간 1,000여 점의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금속 분석 장비(ICP-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계)를 갖춰 중금속(구리,



이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퇴비 부속도 검사 신청자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kg 이상 채취

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분석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해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가축분뇨분석실(☎359-4985, 452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7000만원 부과

군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3,174건, 7억7,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1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한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CD/ATM 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반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자료 이관 작업으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불가하며 작업일정에 따라 하루 이상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